

의회 어깃장...복구 조직개편안 부결 '시끌'

무기명 투표 10대10

신임 구청장 길 들이기 시작
인사 업무 등 구정 차질 우려

광주시 복구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 복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4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중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건 등 5개 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지만 구정 조직개편안인 '광주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광주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은 의

원 전원(20명)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찬성 11명·반대 9명으로 통과됐으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찬성 10명·반대 10명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

당초 복구는 지난달 16일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민생경제과를 신설하고 경제산업과를 시장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존 4국 31과 124담당(보건소 제외)을 4국 32과 126담당으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었다. 또 이에 따른 정원도 기존 1135명에서 10월초 예정된 신규 공무원 25명이 포함된 1160명(증 25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구는 이날 복구의회 본회의 결

과에 따라 조직개편은 가능한 반면 정원이 부족해 조직개편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조직개편안'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의회 안팎에선 "조직개편안은 통과시키고, 인력증원은 막는 이상한 의회"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증원 부결에 따라 당장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신규 공무원 임용 등 인사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날 조례안 상정을 놓고 특정 선거구별로 편이 갈리면서 큰 마찰이 빚어졌다.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킨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재의를 요청한 A의원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간담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등

고성이 오가는 논쟁을 벌였고 결국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

복구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킨 배경에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신임 구청장과의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은 신임 구청장에 대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꾸짖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반대한 것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게 반대파 의원들의 주장이다.

복구의 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이 신임 청장 부임 이후 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면서 행정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우수상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주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한 제20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이 구성원 간 파트너십으로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고자 2000년대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프레젠테이션 심사와 현장실사 후 일반인 평가단인 전국투표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 SDGs와 광주 5차 의제(2017-2021)의 이행을 위한 다(多)가치그린 광주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했다.

지난 2014년 정부 3.0 브랜드 과제 사업으로 시작된 다가치그린 프로젝트는 수년간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운영해 왔다. 한편 본선에 오른 사례들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례집으로 제작돼 국내·외 유관기관과 이를레이 한국사무소, UN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려인 이웃만들기

심포지엄·아카이브 구축
광주시 고려인 지원 나서

광주시가 고려인 이웃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 후손이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랑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삶을 조사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 광주시 고려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광주시 주최, (사)고려인 마을 주관으로 9월 말부터 12월까지 국내외와 해외 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국내사업은 '우리의 이웃사촌 고려인'을 주제로 고려인의 현황조사와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진행된다.

해외사업은 '과거와 미래의 이웃 고려인'을 주제로 고려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취재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글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 한글 동화책을 제작·배부하고 있는 고려대 한·러 번역 동아리 '카란다쉬'가 참여해 해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유적지 등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사진집과 전자매체를 이용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3년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베트남경제문화협회 광주전남지회 출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베트남경제문화협회 광주전남지회 창립출범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5곳 공청회

- 10월 1일 '동명마을 만들기'
- 2일 '광주역 스타트업 밸리'
- 12일까지 주민들 의견수렴

광주시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과 관련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5곳의 대상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절차다.

18일 시에 따르면 10월 1일 오후 4시 동구 대광새마을금고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동구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만들기'를 시작으로 10월 4일에는 광주역 3층 무등산실에서 광주시의 '광주

역전, 창의 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와 복구의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또 11일 오후 6시에 농성1동 주민센터 대회의실(2층)에서 서구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12일 오후 2시 남구 사직동 행정복지센터(2층)에서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공청회가 이어진다.

경제기반형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역전, 창의 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는 중흥동 611번지 일원 50만㎡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된다.

복구의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는 중흥 2동 331-6번지 일원 22만5000㎡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0억원, 동구의 '문화가 빛

이 되는 동명마을 만들기'는 동명동 245-16번지 일원 10만4705㎡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된다.

서구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은 농성동 329-1번지 일원 11만9600㎡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00억원, 남구의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은 사직동 127-4번지 일원 9만8700㎡에서 같은 기간 200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10월 12일까지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 복구청·서구청 도시재생추진단, 동구청·남구청 도시재생과로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0월 18~21일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시는 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 교육청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해오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장에 공동 주최를 제안해 올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도 함께 하게 됐다. 이는 인권보호의 의무를 지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는 새로운 모델로, 세계적 인권포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포럼 주요 참석자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와 스웨덴의 모르텐 사예를 라울렌베리인권연구소장, 네덜의 비자 수너 샤카 카트만두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명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조현 외교부 2차관 등이며, 스페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등 각국 주한 대사들도 함께 하는 등 인권도시 관계자와 인권전문가, 시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균성설사질환 검출률 증가...환절기 식중독 주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면서 식중독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세균성설사질환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 및 지역 내 협력 병·의원과 공동으로 실시된 환병원체감시사업을 수행한 결과, 세균성설사질환 검출률이 6월 19.8%(212건 중 42건), 7월 24.3%(259건 중 63건), 8월 26.2%(362건 중 95건) 등 증가 추세였다. 주요 원인병원체로는 병원성대장균(34.8%), 살모넬라균(28.5%), 캄필로박터균(22.2%) 등이 검출됐다.

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직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신선한 어패류를 구입하고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비금도 옆에 있는 단독섬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3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 무인도
- 목포에서 50분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교환가능(현금 3억+기타부동산)
- 매매 14억(대출3억 포함)

문의. 010-6834-7400

문의.010-3605-5000